

성글게 엮어진 지름이 비가 새
듯이 잘 튀이지 않은 마음엔 탐욕
이 스민다
(法句經 생서품 13절)

東大新聞

발행인: 민병천
편집장: 민병천
주필: 민병천
인쇄: 민병천
민병천
차수: 민병천
별첨: 민병천
전면: 민병천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2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서장동 707(2770-2057)

제 1120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55 10 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3년(단기4326년) 4월 7일 (수요일) [1]

재입학 학생 선별논의 구체화

복적추진위...학사·미등록 제적생 대폭 수용 요구 교육부와의 마찰우려로 사정방침설정 난항...학교

교육부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내린 지난 25일의 복고 조치 결정으로 지금까지 민주 당사결정의 투쟁을 계속해온 제적학생들의 구체방안 논의가 대학마다 주요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교육법 시행령에 있어 예외조항(학사기록 30일 이후에도 등록가능함)의 신설을 권의하고 대학 학생 정원령 개정을 상정 의결됨으로써 취해졌다.

교육부의 이같은 발표는 각 학교의 학적을 개정하는 것부터 실질적 복고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교는 지난달 31일 교육부로부터 학적변경개정안을 인

가받아 구체적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조치가 시국사건과 학원민주화 관련 제적생등으로 국한시키고 있어 학사·미등록관련 제적생들에 대한 명확한 선별 복적방침이 각급 학교로 전달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각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제적생중 복적대상자 선별을 위한 기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본교는 이번주초 '복적·재입학을 위한 제적생선별에 관한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의 구성은 부총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학생처

장등으로 구성된 중앙대책위와 학장, 해당학과장, 학적이 추진하는 교수 2인으로 된 단과대별 대책위로 나뉘어 복적·재입학자에 대한 교육부규정에 따른 선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본교는 '일괄처리방안(가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오는 30일까지 복적·재입학 희망자를 일괄 접수받아 학생처와 대학위 중심으로 선별기준안과 구체적 적용안을 마련해 이를 적용·사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학교당국의 실무협약자 회의가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7년 복적대상자의 누락자부터 여타 대상자들 여러 사유의 제적자들에게 대한 각각의 사정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본교 최순열(국어



부정축재 물수하라! <지난달31일 투기자산 전문물수와 비리의원 전월수환 파면을 위한 학생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했다. 사진은 비상대책위원회 학생 50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는 장면 <이석중 기자>

직원노조 임금협상 주춤 학교측 기본급 3%인상 교수

93년도 제5차 직원노조 단체 교섭이 지난 1일 교무위원회에서 열렸으나 학교당국의 기본급 3%인상 교수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오국근(영문학)=동국산악회 에베레스트 등반대 지도교수로 오는 14일 내발로 출국.
▲한동선(경주캠퍼스 의학)=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심장학회 참석.
▲정필현(경주캠퍼스 의학)=국제학회 참석키위해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체류.
▲이재희(경주캠퍼스 의학)=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대만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구강악안면 외과학회에서 '한국인에 있어 악관절의 침공성 전방관절염 관련 진위에 관한 연구'라는 연례의 학술발표.

학교당국은 지난달 30일 있었던 4차교섭에서 기본급 3%인상 및 자연승급분 약1.3%, 지난해 합의한 채택단련비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8%인상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자연승급분, 전년도 합의분등을 올레 인상률에 포함시킬수 없다"며 "따라서 학교당국이 제시한 인상률은 전년 대비 5%인상일뿐"이라고 반박했다.

노조측에서는 "학교당국은 김영삼정권의 고통분담론을 내세우고 있으며 재단측의 입장을 의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학교측이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응한다면 인상률에 대한 협의도 가능하다"며 학교당국의 성실한 교섭태도를 촉구했다. 한편 총장선출 문제, 여직원 인사 문제등의 단체 교섭안도 협의점을 찾지 못한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후 협상일정은 실무진협의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병찬 교수 출판문화상 수상

본교 조병찬(농경경제학)교수는 자유시장경제사연구(본교 출판부간행)로 전국 경제인연합회 주최 '제4회 자유경제출판문화상'을 수상했다.

이 조교수의 저서는 대학 출판부 발행 책자로는 드물게 재판까지 발행했다.

영문증명서 발급 전산화 기간단축 효과

1주일이나 기다려야 했던 영문증명서(제학, 성적) 발급이 학적과의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신청당일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90년 이후 졸업자들은 신청당일 오후 3시30분까지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아직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88년 이전 졸업자의 영문증명서 발급은 3일로 기간단축 효과가 있다.

경주 교수회 총장면담 성과없어 부총장 인사문제 "빠른시일내 해결하되 방침 교수할것"

경주교수회 부총장 인사를 놓고 재단과 교수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지난 3월31일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경주교수회측 대표와 민병천총장과의 면담이 있었다.

경주교수회측은 지난 3월10일 교수총회를 통해 교수회칙 제45조의 준수를 결의하고 1단계 조치로 결의사항을 재단에 서면통보, 2단계로 총장방문 및 해명을 요청하며 2단계가 관철되지 않을시 총장 및 부총장의 전면 불신임에 들어가기로 했었다.

이날 면담은 경주 교수회 측 대표로 교수회장(박준학·행정학), 부회장(이정원·미술학) 총무(홍광표·조경학) 및 대의원 2명이 참석해 민총장에게 이번 부총장인사에 관한 입장을 밝히도록 요청했으나 법적인 하자 찾을 수 없으며 이번 문제의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있었다.

경주교수회는 어제(6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이후 교수회 입장의 방향을 잡는 의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수대의원들은 계속적인 면담과 질증을 통해 이번 인사파동을 빠른 시일내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총장방문요구 및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면불신임에 들어가기로 한 방침은 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부 전국대회 단체 우승차지

경주캠퍼스 사격부(코치-권봉호)는 지난 3월22일부터 3월27일까지 태릉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사격대회에 참가해 공기소총과 소구경 3자에서 단체우승을 차지했다. 입장내용을 살펴보면 △공기

- 영문증명서 발급 전산화
기간단축 효과
- 1주일이나 기다려야 했던 영문증명서(제학, 성적) 발급이 학적과의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신청당일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 이로써 90년 이후 졸업자들은 신청당일 오후 3시30분까지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아직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88년 이전 졸업자의 영문증명서 발급은 3일로 기간단축 효과가 있다.

| | |
|-----------------------|---|
| 제2조 (제적 학생 구체화 위한 복제) |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개전의 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2조(대학의 편성과 입학 및 졸업 정원에 관한 조항) 제16조(제입학에 관한 조항), 제33조 제3항(제입학과 편입학에 관한 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3조 (입학시기에 관한 복제) |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1993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1993년 4월30일 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이같은 사정기준의 어려운 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승심대는 복적신청서 수납, 과교수와의 면담, 교수협의서 제출, 복적심사등 4단계 사정기반방향을 세워놓고는 있으나 재입학 허가대상자의 선별 내부업무장을

보리수

우리는 흔히 업(業)을 짓는다는 의미인 작업(作業)이라는 말을 입에서 연장이나 기계 등을 가지고 일을 하거나, 근무 시간과 훈련 이외에 별도의 틈을 내어서 진기를 구축한다는 지 막사나 도로 등을 보수하는 일시의 노작행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꼭 이 같은 육체적인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본래의 뜻은 오히려 어떤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지양하는 마음가짐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다시 말하자면 불교에서의 업이란, 몸이나 말로써 짓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도 짓는다는 것이다. 이 뜻으로 짓는 업이 몸이

나 말로 짓는 업의 근본이 되고, 또한 그것들이 나아갈 바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에는 반드시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에 그 의지가 빛난다고 한다.

그러서 극락왕생을 꿈꾸는 정도문의 수행에서는, 우선 각자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마음 씀을 편안히 하고 몸과 말과 뜻을 한 곳에 모아 기원할 적에 작업하게 되는데, 이 때에 그 형태에는 네 가지가 있고, 올바른 수행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즉 네 가지의 형태란, 아미타불 등을 진실으로 공경해서 예배하고, 다른 수행

능력과 환경 및 인성에 맞게 목표를 정해서 전문적으로 추구할 적에 우리는 이를 직업(職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직업을 줄여서 업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직업에 종사할 때는 이를 하나의 생업(生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인격을 완성하려는 한 수행과정으로 생각하여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우리가 만약 어떤 전문직업에 종사해서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직업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누구에게나 따뜻한 업을 가리켜서 직업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편으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음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李 萬

직업(職業)

말하는데, 대개는 퇴직하기 쉽고 수행을 지속하기 어려워서 바라는 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결실한 작업의욕 못지않게 실천이 뒤따라야만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에는 자기의

- 공부하는 직장인 -

아빠는 몇 학년?

"아빠는 몇 학년이야?"
국민학교 1학년 짜리 우리 집 꼬맹이가 가끔 묻는 말입니다.

퇴근 후 책상머리에 붙어앉아 있는
아빠의 모습이 그 아이에게 꽤나 궁금한 모양입니다.

공부하는 아빠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준다 -
그것도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나날이 변모해가는 사회·경제환경에
미리 대처하고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
공부하는 제 자신은 하루가 새롭고
매사에 의욕이 샘솟습니다.

21세기의 문턱 -
눈 앞에 열리는 새로운 시대 -
지금, 세트를 배우고 익혀야 할 때 아닙니다.

저희 동부그룹은 창업초기부터 '공부하는 자세로 일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조국선진화에 기여함을 기쁨으로 일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새시대에도 저희 모두는 공부하는 자세로 저마다의 소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경제발전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동부그룹

■기간산업부문 : 동부산업 ■ 동부제강 ■ 동부화학 ■ 동부건설 ■ 동부고속 ■ 동부엔지니어링 ■금융·보험부문 : 한국자동차보험 ■ 동부에트나생명보험 ■ 동부증권 ■ 동부상호신용금고 ■ 동부창업투자

국회의원의 땅투기와 노동자의 월셋방

92년 가을에 내 자신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부정부패가 만연된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었는가를 고민하다가 신배들과 함께 공장에 가게 되었다.

공장에 들어가며 노동자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 현장의 기온이 밖의 기온과 거의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사장과 전부가 간섭하는 행동은 때로 싸움을 일으킬 때도 있었다. 10년 경력에 12시간씩 노동을 해서 기껏 70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이런 문제는 가정 문제와 직결된다. 얼마되지 않는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 내게 충격을 주었

다. 정말로 직접 느끼는 감정은 말로만 들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책에서 보면, 사회의 주인이며 변혁의 주체인 노동자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자신은 별로 보이는데 위메이여 있어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고 서는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책에서 본 것들에 대해 노동자의 모습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 고통받고 살면서 사회의 부조리가 팽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반발하고 나설 노동자이다.

요즈음 국회의원의 부정비리가 심각해져서 노동자의 모습속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

보일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부정 부패가 가장 분노하는 사람 또한 평생 그런 돈 만져 볼 엄두를 못내는 노동자들임을 확인한다.

노동자 자신이 뼈저리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고민 했는가? 공장 노동자와 함께 가정,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옳은 삶이 될 것일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얻을 수가 있었다.

억압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집을 구하려고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다. 노동한 댓가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 사회를 고민해야 할 대학생으로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국회의원들의 투기가 누구의 호주머니를 열어놓았는가 노동자의 삶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되는 현실 사회로 빨리 바뀌어야 한다.

정현철 <문과대 철학과>

열린글터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260-3491-2.

한다. 그동안 학원자주화, 학내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 왔지만, 학교당국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학교에서 학생의 주인됨을 부정한다 해도, 학교를 짊어지고 나가는 학생들의 위상이 달라질 수는 없다.

학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피부에 직접 닿을 수 밖에 없고, 이를 제반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고 하는 주체는 학생이며, 학생들이 움직일 때 비로소 학교문화가 변화하는 것이다.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리다가, 건의만 하고 아무 실천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분리수거 문제를 제안하는 것은 학생이 학교의 주체임을 실천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며, 학교로서도 이를 인정하는

최용식 <심경대 경영학과> 이미지 <문과대 영문과>

대학생활 설계 공동체적 삶 필요

대학 생활을 시작하지 한 달이 지났다.

메달했던 나무에는 새 잎이 돋고, 진달래, 개나리도 꽃망울을 터뜨렸다.

어릴때 시작한 학교 생활, 낯설기만했던 모든 것이 환경이 이젠 친숙하게 느껴진다.

지난 한 달간의 생활은 혼동의 연속이었다.

내가 기존에 간직해왔던 가치관, 생활 방식이 갑자기 깨져 버리는 속에서 난 갈등했다.

지금도 아니 4년내내 보다 나은 나를 위해 진통 할 것이다.

늘 나 중심의 사고에서 살아왔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극히 사적인 일에만 참여했던 나의 시야를 넓혀주고, 모든 일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 볼 수 있는 변화를 느꼈다.

나 자신이 노동자였으면서도 어느때 제대로 그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그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개인이라는 울타리를 벗고 공동체의 삶속으로 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들이 주는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했던 나에게 대학생활은 큰 과제로 다가온다.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책임 또한 내가 지어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지만 결코 싫지만은 않은 그런 변화이다.

혼란스런 생활이지만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난 열심히 생활할 것이다.



서점수의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새학기가 시작되기도 벌써 보름이나 지나고 서서히 강의도 재가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때쯤이면 으레 몇몇 불비한 곳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학생회관 지하에 있는 구내 서점이다.

전학과에 걸친 많은 전공서적과 교양서적들이 들어차 필요한 교재를 구입 할수 있다.

대학생이면 다들 전공서적에 많은 돈이 들어가므로 그 부담이 적지않을 것이다. 사실 집에서 등록금을 받아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또 돈을 내밀기에 는 미안하다.

매학기당 필요한 서적은 대략 5-6만원정도(과과대 조금씩 차이가 있음)정도 다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다. 교양서적은 선배로부터 빌려받아 쓰면 되지만 전공서적은 자신의 책이 필요하게 사들이고, 학교내의 유일한 서점인 구내

알개기 운동

대학생활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나태와 안일의 집결속에 둘러싸여 있는 대학인들을 향한 알개기 운동 대자보가 나붙어 학내에 잔잔한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제 대학인은 더이상 지성인이 아니다로 시작하는 학생복지위원회의 대자보는 지금의 대학생활을 오만과 용광로 자존심만이 남아있는 구태의 중추자라 지적하고 동국인들을 향해 나태한 지성의 집결을 벗고 주장을 했다.

이런 대학생활문화운동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내에 만연해 있는 퇴폐향락 문화추방을 위한 정책작용의 효과로 보여지며 지금까지 정치·사회 문제를 들고 학우들에게 다가가려던 학생회 등 자치기구들이 대학 문화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학부에서 펼쳤던 생활문화운동은 결서서 선진동까지, 총학생회 총무부 주관 장영학 학우 돕기 사업의 하나인 '사랑의 헌혈카드' 수급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생활문화운동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학우들의 의식개혁에 문제의 초점을 둔 운동은 드물었고 올바른 방향성 제시도 미약했다.

학부위에서는 우리주변에 널리 있는 나태함을 일깨우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진리탐구에 열정과 실천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동국인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개기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알개기 운동

이런 대학생활문화운동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내에 만연해 있는 퇴폐향락 문화추방을 위한 정책작용의 효과로 보여지며 지금까지 정치·사회 문제를 들고 학우들에게 다가가려던 학생회 등 자치기구들이 대학 문화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학부에서 펼쳤던 생활문화운동은 결서서 선진동까지, 총학생회 총무부 주관 장영학 학우 돕기 사업의 하나인 '사랑의 헌혈카드' 수급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생활문화운동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학우들의 의식개혁에 문제의 초점을 둔 운동은 드물었고 올바른 방향성 제시도 미약했다.

학부위에서는 우리주변에 널리 있는 나태함을 일깨우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진리탐구에 열정과 실천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동국인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개기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쓰레기 분리수거 이제 실천하자 작은것부터 학원의 주인으로

'대한사람은 모두가 대한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이상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대한사회에 주인다운 주인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잘되고 못되는 것이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다. 주변을 둘러보아 진정한 주인이 적다 싶으면 빨리 나부터 캄주인이 되도록 합시다.' '도산 안창호선생의 이 말은 요즘같이 대학의 주인 의식이 희박한 시기에 한편잡은 퇴색적분적한 문구이다.

버려진 쓰레기, 모모던 자원이라는 말이 익숙해진 것 같다.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환경문제가 관심을 끄는 것은 생존권을 지키기위한 당연한 요구라 하겠다.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대학인은 다른 어떤 집단 보다도 앞장서 이러한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실천을 위한 자원 재활용 운동으로서의 학교

내 쓰레기 분리수거운동을 제안한다.

학교안에서 생기는 쓰레기의 양은 엄청나다. 그러나 쓰레기의 종류가 단순하고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이다.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지만, 일반 주거지와는 달리 학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종류는 대부분 종이, 페지, 플라스틱, 음식물쓰레기, 용지, 복사지, 신문지 등을 비롯한 각종 폐지들이 많이 배출된다.

대부분의 종이 쓰레기는 분리 내 잘하면 바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플라스틱이나 캔류도 일부 재활용이 가능하다. 버리는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굳이 다시 쓰레기 분류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학생은 대학의 주인이며 학교 구성원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하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우 대중이 스스로 분리수거에 동참하는 것은 학교의 주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실천인 것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단순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학원내에서의 문제를 학우들의 주체적인 참여속에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식개혁과 민주적 훈련을 쌓아 나가는 것이다.

최용식 <심경대 경영학과> 이미지 <문과대 영문과>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학내 제반 문제점 올바르게 지적

지난번 제1119호 신문에 실린 '다단계 판매방식 기사를 흥미 있게 읽었는데 사회면을 비롯하여 여러매체면 등 신중적 분석기사가 실려 그동안 느꼈던 궁금증의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다단계 판매방식은 작년 사회문제에 크게 대두됐던 것으로 다시 우리일에 오르 내리게 된것은 서서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학원으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문에 실린 좌담에서 다단계 판매방식의 범칙 규제가

아르바이트 지리가 있다는데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었는가.

학생들도 건전한 소비생활을 지향해야 할 것이지만 평균연봉 주위에 사로잡혀 돈을 벌 생각으로 뛰어드는 무모함을 버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내 여러 언론들은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학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계속 발굴하고 올바르게 방향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다단계 판매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해 기사와 함으로써 좀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다.

김정아 <인문대 국사학과> '본사 모니터'

동/문/칼/럼

아직도 여전히 "한, 너 몇학기더라..." 오랜만에 만난 선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났듯 물어보는 한마디. "대학원, 그만 듣지 오래 되었어?" 그리고 왜 대학원을 그만 두었느냐. 너같은 애가 대학원에서 공부해야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간다. "그럼, 지금 뭐하고 있니?" "강기훈 중대위라고..." "강기훈?" 이쯤 해서야 내가 자제하기 어려울 듯이 되더라. "왜 그 있었잖아. 91년도에 분신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 그때 강기훈이 라고, 전민련 사회부장이라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사는 세상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분신자살하자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고 구수되었잖아... "이 그 사람." 그러나 여전히 잘 모르는 눈치다. 2년전, 신문방송에 매일 야단법석을 떠는 일이었지만, 이미 거의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진 지 오래다. 살기도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사는 세상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분신자살하자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는 불쌍한 사건으로 여겨지던 구수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1년8개월 반 동안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된하다가 지금의 강기훈 중대위에서 1년 2개월동안 일하고 있는 것이 대학졸업 후의 나의 이력서이다.

강기훈, 죽었다는 동료에게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는 불쌍한 사건으로 여겨지던 구수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1년8개월 반 동안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된하다가 지금의 강기훈 중대위에서 1년 2개월동안 일하고 있는 것이 대학졸업 후의 나의 이력서이다.

알립니다

룸비나 정덕

본사 여론매체부에서는 물물 교환장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지고 있거나 귀찮고 버리기엔 아까운 물품, 꼭 필요한 물품 등을 '룸비나정덕' 라인에 참여주세요.

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거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애용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농학과 91학번 성용기형 축하해요.

- 한미지기

4월11일, 성현이의 귀뚱을 왕 축하합니다.

- 행정 92일동

신규이형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정보관리 92일동

법 92여상현의 생일을 무지박 지하게 축하합니다.

- 예술대 연영과 930이무개양

철용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 93 구은영

정선아, 생일 축하합니다.

알립니다

호형이 아침일찍 도서관 다니느라 수고한다. 공부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사랑-정열적으로!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 수교2 삐뚤디아들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한외과 대학학우 여러분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승리의 그날까지 더욱 가열찬 투쟁을 해 나가시다.

- 동대한외대 비대-위정책국장 은수

명상을 사랑하는 집행부의 모든 영광은 여러분. 무사고 M.T를 준비 진행 하느라 정말 수고 했습니다.

- 누군가

열심히 합니다

선영아 항상 열심히 부지런히 신문사일 참고 또 참고 해나가는 끈기에 다짐하는 격려를 보낸다. 참을 인자 3개월 살인도 면한다. 잘 할 상 염두해두고 공부도 열심히하라.

중문과 미인대(기수사투기)

한을 후배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노력들이 선하게 너무 보기 멋있구나 너희들은 멋진 선배가 될수 있을것 같다. 앞으로 힘들더라도 계속 뛰어서 정상에 우뚝 서길 바란다.

- 선배가

진직이형 생일이 정상에서 만나자

- 학우열에 불타는 어느학우가

목 먹 골

축하합니다

농학과 91학번 성용기형 축하해요.

- 한미지기

4월11일, 성현이의 귀뚱을 왕 축하합니다.

- 행정 92일동

신규이형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 정보관리 92일동

법 92여상현의 생일을 무지박 지하게 축하합니다.

- 예술대 연영과 930이무개양

철용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 93 구은영

정선아, 생일 축하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파대 출범식이 4월7일이예요.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사파대 여러분, 힘내십시오.

알립니다

이번주 금요일(9일) 오후 5시 A206에서 문과대 대의원 교양학교 및 대의원총회가 열립니다.

- 제25대 문과대 대의원회

4월10일 10시부터 바깥소 5기들의 지상훈련 중간고사(?) 가 있습니다. 선배들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국연극회 4월6일-7일 연극합니다. 많은 학우들의 관람바랍니다. 불만연극입니다.

- 골연 13기 예쁜이 YL

왕언니! 하이킹이요 4월9일날 졸업후 후회하지 말구요

- 왕언니를 따르는 철학과 모범생

준계 L.T'가 4월10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화년남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5기후배 대령 병부 좋은 은주 윤정진속 미화 화숙 지속... 등 모두 모이 자 얼굴좀 보자.

- 우주소배와 7기4배

드디어 東山人박문의 연합동문회가 개회합니다. 학우 여러분 첫

수고 하셨습니다

동국연극회 4월6일-7일 연극합니다. 많은 학우들의 관람바랍니다. 불만연극입니다.

- 골연 13기 예쁜이 YL

왕언니! 하이킹이요 4월9일날 졸업후 후회하지 말구요

- 왕언니를 따르는 철학과 모범생

준계 L.T'가 4월10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화년남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5기후배 대령 병부 좋은 은주 윤정진속 미화 화숙 지속... 등 모두 모이 자 얼굴좀 보자.

- 우주소배와 7기4배

드디어 東山人박문의 연합동문회가 개회합니다. 학우 여러분 첫

은방 골

축하합니다

사설

한의학의 되살리자

최근 한의학과 약학계의 열띤 공방전은 단순히 그동안의 논쟁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건강을 놓고 갑론을박 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보건사회부는 지난 1월3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통해 현행 제11조(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7항 '약국에는 제재시 한약재외의 약품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의학계는 '약국에서는 한약약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위 제11조 7항 삭제에 대해 전연적 반기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한 약사회는 한약의 의약품이고 의약품의 조제는 약사의 고유권한임을 들어 개정안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위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약국들은 한약약 개선을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되며 약사는 한약을 조제·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대한한약협회를 비롯한 본교 및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은 민족학인 '한의학 수호'의 명분을 내세우고 협회주최의 공청회, 협회·한과대 교수들의 연대 결의문을 각 일간지마다 게재하는 등 민족의학수호 및 국민건강 보호의 구호를 연일 외치고 있다. 또한 전국 11개 사립대학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3월부터 전면수업 거부를 결의하고 투쟁에 동참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법조항의 개폐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로 인식되고 있지 못한 한(韓)의학발전 전 전방의 존재여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얼마나 소외되어 왔는가를 짐작케 한다.

조선말까지 수천년동안 우리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존재하던 한의학은 일제시대 때 맞고 그 존립조차 어려웠던 적이 있었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한의사제도의 폐지, 한의학교인 동경제국학교의 강제폐교등 법제상 존립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해방이후에도 한의학은 국가정책속에서 계속 소외돼 왔다. 양의단체의 일원외교비에서부터 양의학위주로 입법된 보건사회부의 영조항과 제도속에 민족의학으로서의 위상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일제의 동양학이나 민간요법의 효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한의학의 역할이나 위상은 이제 정면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의학 발전개혁의 지 없는 국가정책은 발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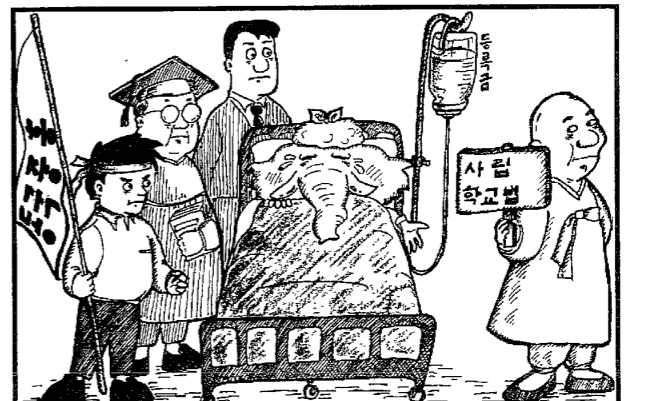
더구나 '양약'에 의한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전제 담무리에 이번 일처럼 한의학과목을 2학년수준에서 강의받은 약사에게 한약조제를 일임하는 터무니없는 법조항이 나오고 있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처방조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의학발전의 규정을 담은 대한약전은 한약의 조제방법조차 기록돼 있지 않다.

이런 경우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힌 사례도 많다고 한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건사회부의 이번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한의학발전 전담기구의 행정기관내 설치등 발전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다.

東國漫評

김상남



김은주 <학술단체협의회 간사>

기를 손꼽을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한탕주의와 부동산투기병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돈을 들고 금리를 내리기 이전에 부동산투기병을 완전히 뿌리 뽑고 경의롭고 깨끗한 윤리질서와 경제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한탕주의와 부동산투기병을 일거에 없애기 위하여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 부동산투기꾼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실절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한탕주의와 부동산투기병부터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넷째, 금융실명제의 실시일정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금리실명제가 빨리 실시되어야 부정한 돈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고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신경계의 100일 계획에는 금융실명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경제사회를 확립하기 위해 서라도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경계의 100일 계획에는 교통분담의 차원에서 임금인상과 생활물가인상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불로소득자에 대한 교통분담은 어디에 있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경제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렸거나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흘리지 않고 어슬렁거리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단기간에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렸거나 올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단기간에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리고도 요리조리 약쟁이에게 피해 다니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경제의 체질을 허약하게 만드는 존재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임금인상에도 교통을 분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세금을 더욱 경감하는 대신 부동산투기에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불로소득자들에게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불로소득자에게도 확실한 교통을 분담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것을 보완해야만 한국경제의 체질은 강화되고 튼튼하고도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다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학파가 주장하는 경제지반이다. 케인즈 학파의 처방에 따른다는 치러도 너무 급격한 경기조절정책은 현명하지 못하다. 최근의 경기부양정책은 성장을 너무 급하게 추구하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금리를 2개월사이에 4~5%정도 내린 것은 너무 급격한 경기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다. 1월26일에 금리를 대폭 인하했으면 최소한 6~9개월정도 그 효과를 지켜봐야 했다. 금리를 오늘 내린다고 내일 당장 투자가 되살아나고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신경계에서 추후되고 있는 자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완전자유화하고, 통화량을 재량적으로 조절하는 재량정책보다 적정통화성장률을 유지하는 통화공급준칙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규제를 완화한다고해서 그린벨트를 완화하거나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금리

를 내리는 것이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허약체질 개선위한 근본처방 미흡

신경계가 보완해야 할 점

것은 아니다.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내리면 평균적으로 6~9개월 정도의 시간차 차이(time lay)를 거쳐야 비로소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금리인하의 시차적인 파급효과를 파소평가한채 너무 성급하게 지난 3월26일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금리를 단기간에 너무 많이 내리고 돈을 과도하게 풀면 물가는 뛰기 시작한다.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 보습사람들의 생계비(cost of living)는 빠른 속도를 상승하고, 그에따라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 물가폭등으로 보습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 다른 것을 좀 절제해야 별로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해서 성장을 너무 급격하게 추구하다보면 물가는 뛰고 거품경제가 발생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는데 좀 미흡한 것 같다. 약화될 대로 약화된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면 다시 한국경제는 허약해질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이렇게 약화되어가자 원인중의 하나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한탕주의적인 부동산투

구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리의 완전자유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다.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다. 통화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규제정책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적정통화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효율적인 점을 알아야 한다.

영어 일본어. 수년간 대학생 및 직장인들에게 일본어에 관한 최고의 강의를 실시한 결과 많은 성과 및 각계의 찬사를 얻은바있는 '트러스트 외국어 연수원'에서 정규회화반을 개설합니다.
① 목적: 국제화시대에 즈음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육성
② 대상: 대학생, 직장인, 주부, 바쁜시간에도 자유로운 수강을 원하시는 분
③ 강의시간 및 내용: 영 어: 6개월(월수금 1일 90분) 일본어: 7개월(매일반, 격일반, 주2일반)
④ 연수교재: 영 어: American Stream Line (OXFORD대학판) 일어: 뉴 나가누마 표준일본어 (동경일본어학교사용교재)
⑤ 연수장소: 영 어: 시청역 일본어: 서울역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바랍니다.
각급 학교 단체등에 출장강의를 환영합니다. 상담 및 등록 (02)319 4291 TRUST ACADEMY

제12회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갈 대학인의 지혜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본 제: ①통일환경 변화와 통일의 전망 ②남북사회·문화의 동질성 회복방안 ③통일을 대비한 국민정신교육의 방향 ④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방안 ※위 논제중 택 1
대상: 대학 재학생(전문대학 포함)
시 상: ①최우수작 1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및 장학금 100만원 ②우수작 2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및 장학금 450만원 ③가 작 5편: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상 및 장학금 430만원 ※특전: 입상자 전원 사회참여권 국가 장학기부(93. 12월중)
마 감: 1993년 9월 15일
분 량: 200자 원고지 기준 100매 내외 (단, 5매 내외의 내용요약 첨부)
발 표: 1993년 10월중(개별통지)
보낼곳: 통일원 교육홍보교 교육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종합청사)
기 타: ①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②성명 및 연락처(주소·전화번호), 소속대학·학과 명기 ③논문 제출시 제학중명서 1부 첨부 ④상세한 내용은 통일원(02-738-7522, 725-3945) 또는 소속대학 통일문제 연구소에 문의
통 일 원

제1회 필립스 대학생 영어 에세이 현상공모
1991년 설립된 필립스는 전세계적인 조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회사로서 산업 전자기기, 의료장비, 통신장비, 오디오, 비디오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과 디지털 콤팩트 카세트(DCC), 고화질 TV (HDTV), CD-I, Photo CD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의 선두주자로 소비자의 만족과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필립스의 첨단기술을 국내에 보급하고, 국내 생산제품을 해외에 수출 해온 필립스 산업 코리아가 제1회 대학생 영어 에세이현상공모를 실시하오니 높은 학구열과 진취정신의 소유자는 대학생

교재 유통 구조 개선돼야 한다

출판사 별로 전공서적 가격 천차 만별 학복위 직영 서점운영등 실질적 대안 마련 시급

매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맞는 교재를 구입하는데 적잖은 지출을 하게 된다.

더불어 꼭 필요치 않은 전공외의 교재는 되도록이면 판매처에 물려 받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매년 교재가 바뀌고 있어 더욱더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 해주고 있고 더욱이 교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목차순서나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학생들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 구내서점의 형태가 임대방식을 취하고 있어 임대료만 지불하고 나머지 사업을 서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점의 한 점원은 "책값을 시중가격보다 조금 싸거나 원래 그대로 판매한다"고 밝힌다.

그러나 학년 끝자리 번호가 같은 선·후배끼리 물려받는 이 교재물려받기 운동은 교재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 서만 가능하다는 효율의 한계가 지적 될 수 있다.

또한 되도록이면 전공에 필요한 책은 4학년까지 계속 필요하기 때문

에 판매들도 교재를 구입할 것을 권유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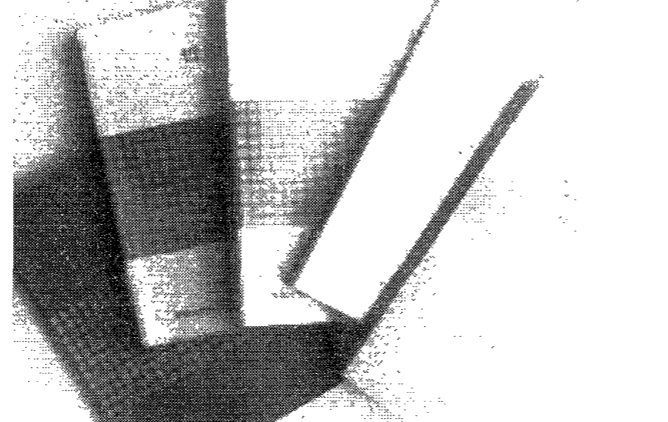
지금 자리잡고 있는 구내 서점의 계약 만료시 6월로 다가오며 따라 공판위 조약상 '서점은 계약 만료후 계약 만료를 할 경우 학교측과 학복위는 공동 계약토록 한다'는 하는 내용을 두고 학복위원장 김운현(회계 4)은 "올해 4월말쯤 구내서점업자 선정을 놓고 공판위 측에서 공개입찰이 있을 예정이다."

만약 서점형태가 직영으로 간다면 더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 또 똑같은 책이라도 출판사 별로 다를 수도 있어 품목, 가격, 서비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다른 차원으로의 환원방법을 모색중이라 한다.

현재 연세대 구내서점의 경우 직영으로 학생들에게 영가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기간만 재정난으로 어려운 국면을 당했을 뿐 현재 상황은 태내학서점보다 훨씬 운영이 나은 상태라고 한다.

같은 책을 놓고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격과 구내서점의 가격차이에 대해 서점 직원은 "그런 일은 간혹 있을 수 있다. 재관 발행시 가격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시중서점과 구내서점의 가격차이



현재 구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교재들

에 대해 임호일(독문학)교수는 "학생들이 외부에서 책을 구입하는게 번거로울까 봐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 구내서점에 책을 의뢰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교재부탁을 고려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교재선정시 기준은 따로 있지 않고 학생들 수준에 맞게 선택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 않게 하기 위해 2-3년 사이를 두고 새로운 교재를 고른다"고 밝혔다.

서점직원의 의의를 단지 가격인하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실행

에 옮기는 일이 무척 어려움을 동반하겠지만 직영으로 해서 얻는 이익은 많이 지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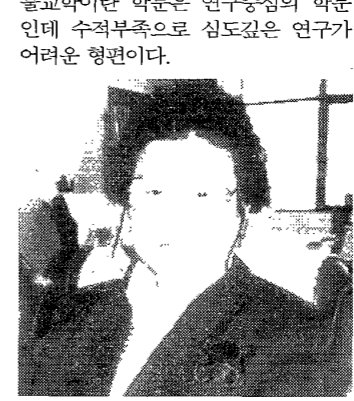
예를들면, 불광동서 자체를 막을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말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재를 들여올 수 있다.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재가 이렇듯 잘못된 유통구조로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교재선정과 유통에 필요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사회부>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연구 분위기 조성해야 한다”



불교학이란 학문은 연구중심의 학문인데 수적부족으로 심도깊은 연구가 어려운 형편이다.

1906년 5월 8일 근대 불교교육을 위한 중앙교육기관으로 출발한 불교의 역사는 불교대학의 역사와 함께 했다. 이후 여러차례의 교명 변경과 강제 폐교등의 역사를 겪으면서 46년 동국대학으로 승격 불교학과, 국문과, 영문과, 사학과 등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맞이한다. 불교대학은 개교이래 계속 동국의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일부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불교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해 이영자(불교학) 불교대학장에게 들어본다.

—불교대학의 설립취지는 무엇이냐.

—한국불교를 전통적 연구방법이 아닌 근대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했다.

—불교대학의 앞으로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동국대학교의 87년 역사를 대표하는 단과대학으로서 한국 정신문화 창조를 주도해 왔으며 또 현대사 업사회의 기능위주의 교육이 정신문화의 쇠퇴를 막고 정신적 유산을 재창조하는 대안으로서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불교대학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어떤가.

—우선 수적 열세를 들 수 있다.

는 것도 다 이러한 수적 열세에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신학대학의 수는 많은데 비해 불교대학의 수는 본교 한교대 뿐이다. 이 또한 기록교가 짧은 기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

—이의 극복 방안은.

—정부당국과 중앙에서 불교학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시설 등 수적 증가에 힘을 써야 한다. 또한 질적 향상을 위해 강의의 질을 높이고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배 놓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교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학과와 학생들의 증원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의 확충과 우수교수의 확보도 중요하다.

—학과 증원이란.

—시대에 적용하는 새로운 응용 불교 연구가 필요하다. 불교문화연구나 중국불교철학연구등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본교에 속해있는 구성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불교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해야 한다. 불교를 전근대적 사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주체적의식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재홍 기자>

“우리 술문화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본교 통계조사연구회는 본교 93학년도 신입생 11,40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에 대한 몇가지 문항을 준비·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결과분석 자료중 몇가지 결과들을 중심으로 도표와 함께 심는다. <편집자>

문제: 공강 시간의 활용은?

여기 저기로 13.0% 도서관에서 14.4%

식당, 운동장 10.3%

동아리방 24.0%

학회실에서 23.3%

선배, 친구와 유희 1%

문제: 술문화는 어때요?

음주횟수 분포가 다 잘못됐어요 3.9%

모두 좋아요 21.35%

필요는 하지만 너무 지나쳐요 74.8%

문제: 대학 수업이 싫은 점은?

교수님 강의가 너무 지루하다 32%

교과목이 너무 어렵다 20.4%

과제량이 너무 많다 11.8%

과제 성취가 너무 힘들다 8.8%

기타 4.8%

싫은 점 없다 4.1%

문제: 대학의 모습은 어때요?

자유 그 자체 14.6%

기타 2.8%

학문 탐구의 장 25.0%

남반의 삶 9.7%

폭 넓은 인간 관계를 위한 47.9%

경주 캠퍼스 자리잡은 환락·유희가

‘왜색문화’까지 침투

학생 스스로의 자각 선행돼야...

경주캠퍼스 주변 환락유희문화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주시의 유일한 종합대학인 경주캠퍼스는 지리적 협소함과 고령성으로 도주 타 대학과 비교된다.

그 가운데 대학문화, 특히 대학 주변 생활환경문화를 이야기 할 때 경주캠퍼스의 주변환경은 어느새 술집과 당구장으로 대표되는 환락·유희문화란 울림을 느끼게 된다.

현재 학교앞 성진동 네거리를 중심으로 약 1백미터 거리에 밀집해 있는 유희업소는 술집이 28개, 당구장이 14개, 커피방·다방·레스토랑 15개, 가요방 5개등의 업소가 성업중이다.

이제 대학이 서점을 학교앞을 통틀어 한의약 서점을 전문으로 하는 등 의서원 한곳에 불과하며, 약국은 두곳, 의과대학이 한곳, 대학가에는 으레 한두곳 정도 찾을 수 있는 전통찻집은 아예 없어 가장 기본적인 대학문화시설조차 찾아 볼 수 없는 실태이다.

특히 올해 신학기를 맞으며 지난해 겨울 세워진 3동의 건물도 모두 술집·당구장·미용실 등이 들어서 성진동은 학생들 사이에서 성진동으로 통칭하며 밤이면 대도시 유희거리를 방불케 하고 있다.

또 일명 ‘보바디야’로 불리는 일식주점이 불황을 모르는 신종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장군, 비네’ 등의 로바디야기집은 다다미가 깔린 왜색풍의 실내장식과 1만원의 안주, 정종류의 도수낮은 술로 한자리술값이 4~5만원씩 쉽게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계속 생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러는’ 선망의 아르바이트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처음엔 나이가 많은 직장인들의 손님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동대생은 말할 것도 없고 소문내고 찾아오는 고교생 정도의 손님도 자주 본다’라는 로바디야기 ‘목동’ 주인의 말은 하루 매출을 80만원까지 올리는 성진동 유희업소의 번성 이면에 노출된 경주캠퍼스 주변환경의 향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거울 세워진 3동의 건물도 모두 술집·당구장·미용실 등이 들어서 성진동은 학생들 사이에서 성진동으로 통칭하며 밤이면 대도시 유희거리를 방불케 하고 있다.

또 일명 ‘보바디야’로 불리는 일식주점이 불황을 모르는 신종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장군, 비네’ 등의 로바디야기집은 다다미가 깔린 왜색풍의 실내장식과 1만원의 안주, 정종류의 도수낮은 술로 한자리술값이 4~5만원씩 쉽게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계속 생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러는’ 선망의 아르바이트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처음엔 나이가 많은 직장인들의 손님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동대생은 말할 것도 없고 소문내고 찾아오는 고교생 정도의 손님도 자주 본다’라는 로바디야기 ‘목동’ 주인의 말은 하루 매출을 80만원까지 올리는 성진동 유희업소의 번성 이면에 노출된 경주캠퍼스 주변환경의 향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타지역 학생들 대부분이 경주캠퍼스

타지역 학생들이 대부분인 경주캠퍼스 학생들 중 일부는 ‘한정장사’라는 인식이 반영되고 있는 비상식적인 영업태와 무분별한 왜색문화의 유입이 그동안 경주캠퍼스 학생들의 생활방식을 심각하게 위협시켜 왔다.

최근 들어 점차 고조되어 가는 학교 주변 문화환경개선 움직임들은 학생들의 올바른 문제인식과 주인의식의 발현이 실질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제 학생들을 볼 때에 생각하는 유희업소주들의 잘못된 영리추구의식을 깨뜨리는 길은 우리 스스로 서부른 오렌지족 행동을 반성하고 내부의 자각과 개혁의지가 확고히 섰다면이 자합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재홍 기자>

예비군 기본교육 소집공고

향년법 제6조에 의거 93년도 예비군 기본교육을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아 래

- 교육대상** 본교 예비군 전원(교직원 및 재학생 학·석·박사과정)
- 교육대상 제외자**

가. 93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 나. 93년 1월 1일 이후 동원훈련을 필한 자

다. 86년 12월 31일 이전(전역 7년 이상)에 전역한 일반차사, 병, 보충역에 해당되는 자

라. 85년 12월 31일 이전(전역 8년 이상)에 전역한 장기차사 이상 군부에 해당되는 자

마. 미필 보충역
- 대학별 교육일정**

| 대 학 | 교육일정 및 장소 | 대 학 | 교육일정 및 장소 |
|-------|---------------|------------|---------------|
| 경 상 대 | 4 9(금) 본교 | 4 12(월) 본교 | 4 21(수) 219연대 |
| 공 과 대 | 4 20(화) 219연대 | 공 과 대 | 4 13(화) 본교 |
| 법 과 대 | 4 22(목) 219연대 | 법 과 대 | 4 22(목) 219연대 |
| 사 회 대 | 4 15(목) 본교 | 사 회 대 | 4 15(목) 본교 |
| 농 과 대 | 4 26(월) 219연대 | 농 과 대 | 4 26(월) 219연대 |

※ 각계 점호함으로 교육일정 및 장소변동 불가

- 교육장소**

가. 본교(중앙당) 개별 도학

나. 219연대(노고산에 있는 중로, 중구 예비군훈련장)

1) 구내별 전철역에서 시내버스 156번 북한산성 경유 송추역 탑승하여 20분정도 소요 (156번 삼천리, 일명경유 차량 탑승금지)

2) 구내별 전철역에서 송추쪽으로 300m지점에 학교버스 대기(07:30분까지)
- 교육기간** 08:00~17:00/07:30분 이후 도착자 대기버스 이용 불가)
- 복 지** 예비군복(전투복, 전투모, 전투화)은 미리 착용하고 교육장에 집결
- 휴 대 품** 증명서 (학생증, 주민등록증, 필기구)이 소지자는 허가시
- 유의사항**

가. 훈련기간 중 국가고시, 입원, 천재지변(불의사고)발생 시 즉시 관계서류 제출

나. 93년 2월에 졸업(수료), 휴학하는 교육필요도 무효처리됨으로 교육소집 통지서 즉시 반납 요망

다. 통지서로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자는 즉시 비상재확보 연락 요망

라. 기간내에 교육소집통지서 수령 및 교육일정을 준수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93학년도 EWU파견

- 선발분야 및 선발인원**

①선발분야: EWU개설 전학과

②선발인원: EWU대학원 석사과정 1명
- 지원자격**

①본교 졸업생 또는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②학부 전공, 석사과정 전공이 일치하는 자

③학부 및 석사과정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④평점상 해의유약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⑤이상의 모든 조건을 구비한 자
- 제출서류**

①지원서 1부(소정양식)

②학부 및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통

③학부 및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통

④지도교수, 학과장 추천서, 수학 계획서(영어로 작성) 각 1부

⑤TOEFL(580이상), GRE성적표 각 1부
- 선발방법**

①서류심사

②해당국 언어 독해, 작문, 해당국 언어 회화시험

③면접 및 자질심사
- 시험일정**

①원서교부 및 접수: '93. 4. 8(목)~'93. 4. 16(금)

②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93. 4. 9(월) 합격자 개별 통보

③2차 독해 및 작문시험: '93. 4. 21(수)

④3차 회화 및 면접: '93. 4월 중 합격자 및 면접일자 개별 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처** 기획조정실 국제부

* 기타 의문사항은 기획조정실 국제부로 문의바람 (전화 260-3024: 송민수)

성명서

반세기여 달하는 분단조국의 역사가 외세에 의한 민족적 출혈을 강제한 숭고한 강령의 연속이었지만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조성되는 국내의 정세는 또다시 한반도를 군사적 긴장상태로 내몰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적 정책이 조장하고, 이를 맹종하는 일본 등 서구 강대국들과 이들의 보수연군에 의해서 민족상잔이라는 위기로 치닫해 하고 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그 이후 조성된 여러 숭고한 정세는 진실이 온배된 채 왜곡과 왜곡을 거듭해 오고 있다. 북한에 대한 패권주의적 행위를 위한 명분 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표적인 왜곡사실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은 북한핵문제를 빌미로 무력행동을 시도하지 말라!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종류의 군사적 시도도 민족상잔이라는 '제2의 6.25'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한다. 또한 '제2의 6.25'는 핵전쟁으로 귀결되고 이는 민족적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핵무기 '북한핵개발위험성'을 빌미로 북한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군사적 행동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정부는 틈스피리트 훈련을 영구히 중지하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틈스피리트훈련의 재개이다. 외국군을 끌어들여 같은 동족인 북한을 상대로 전쟁연습을 하는 행위는 민족의 이름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틈스피리트훈련은 영구히 중지되어야 한다.

미국은 적대적인 대북한정책을 철회하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한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북한 공세정책이 수정되지 않은 채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할 수 없다. 미국은 대북한 적대정책과 왜곡된 북한 핵개발 위기를 불모로 단단패권하의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여성과 여성의 재인식

세번째 남성이 보는 이 시대의 여성상

요즘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의 면면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남녀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전체 대학생 수(전문대·교육대 포함) 중에서 차지하는 여학생 수의 비율은 1991년 현재 약 37 퍼센트로서 아직도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인문·사회계열대학은 이미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와 비슷하거나 웃돌고 있으며, 학과에 따라서는 수년전만 하여도 여학생들이 3~4명 기껏해야 7~8명 정도이던 경향이 이제는 남학생들이 오히려 희귀한 존재가 되고 있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전통적으로 여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던 법대, 의대, 공대의 남녀 학생 비율이 비슷해지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강의나 토론 시간은 물론 학생들 자신에 의하여 주도되는 클럽활동, 각종 답사

도 그대로 해당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여성사회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여자는 어릴 때는 친아버지를 따르고, 출가한 후에는 지아버지를 따르고, 지아버지가 죽고나면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전통적인 삼종지도에 대한 저항의식이 깊이 깔려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나름대로 주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전통적인 유교사회의 규범을 깨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여성이라는 친아버지와도, 지아버지와도, 아들보다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여성성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흔히 주체성이라고 말하는 자기다움은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와 무관하게 고립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체성이라는 역설적이게도 나와 대상과의 관계에 붙여진 또 다른



○일과 직업을 자기다움의 근본으로 삼는 현대의 여성상은 남성에게 결혼, 가정 및 자녀양육의 중요성이 깨어지는 상실감을 느끼게하기도 한다.

가하고 있는 이혼율에서 우리는 조카 조카 딸이 된 채 주체적 삶의 추구란 명분하에 자기의 이기심 충족에만 급급하고 있는 인류의 미래를 본다. 동일한 맥락에서 남성을 못지 않게 일에 대한 집념이 강한 이들은 가사 일은 물론 자녀를 양육하는 일조차 부부가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인들의 서

그들이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삶의 의미를 그들의 성장과 발전에 두었던 우리의 주체성이 하루 아침에 상실되는 것일까? 자식의 성장과 발전을 자기 주체성의 근본으로 삼았다면, 그 주체성은 자식이 성장하여 나름대로의 세계를 가졌을 때 또 그로 지속되고 더욱 고양되는 주

를 물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사회적 억압은 그 물을 가두고 있는 댐과 같은 것이다. 댐이 일거에 사라졌을 때 육류의 불충족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질대로 사방팔방으로 뿔어나간다. 그리고 무엇이 남았는가? 육류의 바닥을 보는 황폐한 마음 뿐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들리는 소리는 기존의 도

달나라 전장에



이명훈 <농과대 농학과 교수>

먹을 거리

이명훈 <농과대 농학과 교수>

요즘 같이 먹을거리가 많고 다양한 시대에 사는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닌,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 처럼 먹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먹을거리가 등장하고 각종 인스턴트 식품이 개발되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망설여질 때가 있다. 우리의 음식 문화도 이처럼 발전하여 살기 위해 먹는 차원을 넘어서 먹기 위해 사는 경지로 들어가고 있으니 선진국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얼마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굶주림과 배고픔의 세월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음식 문화가 발전하고 먹을거리가 다양해져도 우리의 주식이 쌀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수천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쌀은 우리의 삶 그 자체였으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생활에서 늘 부족하였고 더 필요했던 쌀이 이제는 자급이 되어 남고 있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이도는 쌀을 저장하고 보관 하는데 매년 수천억원이 소요된다는 행북한 고인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이다. 주식인 쌀이 자급되어 이제는 남이도는 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워낙 수준까지 낮아지고 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서 음식 문화를 논하고 먹을거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거에는 허투루게 씌웠던 쌀이 요즘은 우리 식단은 매우 다양하다. 여러가지 먹을거리에서 밀가루 제품을 거의 매일 같이 대하게 되는데 이것이 전부 수입품이고, 또한 국내에

앞으로 쌀마저도 수입 개방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상상해 본다. 우리나라에 가뭄이 들고 흉수가 저조되면 쌀은 물론이고 다른 농산물 수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기원하는 외국 중견업체를 지내야 되지 않을까 조금 과장해서 생각해 본다. 현재로서는 돈만 있으면 먹을거리를 얼마든지 사올 수 있고 또한 경제적 여력을 조금은 있는 듯 싶지만, 우리의 농업기반이 완전히 붕괴된 후에 그들은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더구나 돈이 없을 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오래전에 사라진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지는 않을까 모를 일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먹을거리 밑에서 좋은 세월을 행하되 지나친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인간으로서의 주체성 확립... '삼종지도'는 옛말

남녀관계 옥죄던 사회관행·금기 소멸 현대 여성의 상징 '적극성' '능동성'

여행, 연립 MT등에서도 남녀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이 많은 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내소녀' 일일 오늘날의 여학생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각종 개인이나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즐기려한다. 이들이 알고 있는 남여간의 평등론은 이들의 대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같이 입학한 동기 남학생에게 경어를 쓰지 않는 것은 이미 옛이야기가 되었다. 첫째 남학생은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오늘날의 여학생들은 이성에 대한 신비함이나 의경에서 이렇기보다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에 이끌리는 경우가 더 많으며, 거기에 대하여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처럼 보인다. 성관계로부터 오는 내밀한 쾌락은 이제 더 이상 내밀한 것도 아니요, 어른만의 것도 아니요, 남자만의 것은 더욱 아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를 추구한다. 비록 적지 않은 여성들이 과감하게 이를 실천에 옮기는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마음속에는 그들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물이 많음을 그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다면 자신을 그의 재물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재물은 그의 주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사람이 따라서는 자신의 학벌을, 미모를, 명예를, 사회적 지위를 으뜸가는 자랑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성들은 무엇을 자기다움의 근본으로 삼는가? 그들이 부모도, 남편도, 자녀도 아닌 그 무엇으로 자기다움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이고 직업이다. 오늘날 여성들이 일과 직업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직업을 가진 여성 특히 직업세계에서 성공을 거둔 여성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또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등장은 사회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아무런 대가없이 덤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다. 그 대가는 남성들의 입지가 좁아졌거나, 그들이 전통적으로 누려왔던 권위를 상실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 대가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것은 결혼, 가정 및 자녀양육이 그 중요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서운 속도로 증

세에 기가 죽은 남성들은 감히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의 논리를 펴지 못한다. 후자는 여인들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저절로 벌 받은 죄값에 대한 엄보러니 생각과 후자는 여성들의 자존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스스로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청소하고, 애기보는 일 등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할 것임을 맹세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젊은 남성들이 이러한 맹세를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이들은 거의 예외없이 여성들의 찬사를 받고, 때로는 진보적이거나 현대적인 남성의 표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솔직히 말하면 역시 충량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기를 낳고 아기에 젖을 먹이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높은 인격에, 남편의 발전과 사회적 성공에,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삶이 이들과는 결별하고 내세울 것이라고는 그 자신의 직업적 성취밖에 없는 삶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삶일까? 우리의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 키운 자식마저도 장성하면 결국은 우리 곁을 떠나고 만다. 그들이 장성하여 그들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체성이 아닐까? 오늘날의 여성다움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은 20세기 사회운동의 한 지류를 형성하고 있는 성의 해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전통적인 혼락중심의 농업사회가 붕괴되고 현대적인 도시중심의 산업사회가 새롭게 형성되었을 때, 지금까지 남녀관계를 옥죄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적 충동을 억압하고 있었던 기존의 사회관행과 금기들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성에 대한 지나친 억압이 정신분열의 근본원인이 라고 본 프로이트가 오늘날에 다시 태어난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대부분은 대학 생활 동안 성에 대하여 일말의 의혹이나 신비감도 남기지 않은 채, 속속들이 알게되고,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에 대한 욕구

를 너무나 억압적이고 가식적으로 때려부수어야 한다는 함정 뿐이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마음놓고 배우고 그리고 어느 곳이나 충족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도덕적 장애물을 없애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덕의 댐은 욕망의 물줄기를 조정하는 수문이다. 그것을 너무 낮추면 물이 넘쳐나고, 그것을 너무 높으면 물이 마르고, 물을 동시에 하고 있음을 인정하려 드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도덕의 댐으로 인하여 욕망의 물줄기는 예슬이 되고, 시가 되고, 문학이 되고, 과학이 되고, 기술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도 여성다움은 물론 인간정신의 비상을 위한 방편일 수 있는 것이다. 욕망만을 추구하는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고 후회하고 스스로 연민할지라도 그 별거없는 욕망을 위하여 사회적 도덕의 댐을 한사코 무너뜨려야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박부권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클 실는 차례

1. 여성역의 현상적 실태 - 법률권 보장수준을 중심으로
2. 여성 스스로 보는 진정한 여성상
3. 남성이 보는 이시대의 여성상
4. 올바른 성의 실제 확립을 위하여

북한의 매아리

고려밀교사상사연구

기존의 학설을 깨는 새로운 학설이 대두될 때 사람들은 관심을 집중시키지 마려다. 일반사나 불교사에서조차도 소외당했던 '밀교'에 관한 연구를 처음 시도한 책이 이 '고려밀교사상사연구'이다. 이 책에는 한국사, 그 중에서도 한국불교사상 특수분야인 밀교사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불교사상사의 한계성을 해결해 준 밀교의 원류를 서술하고 있다.

'밀교'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 불교사상의 한계 극복에 한몫

고려시대의 밀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불교사의 완벽한 정립은 물론 고려에 있어서의 불교를 위시한 정치적·사회적 권이 부족으로 실려있으며 참고 문헌으로는 고려불교에 관계된 연구저술, 박사학위논문, 국내의 논문들이 실려있다. 이 책이 다른 책들과 다른 주요한 점을 든다면, 조선국사에 관해서는 신라부본에서부터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책상인데 여기서는 고려대조가 훈요에서 거론한 부분과 그의 사상적 영향이 고려시대에서 크게 작용했던 점을 주요하게 제기하며 다루고 있다. 또한, 밀교는 하나의 특수분야이므로 여자의 고려불교사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고려불교는 특히 밀교적인 내용과 영향이 깊게 깔려 있다. 이렇듯, 여러 자료를 토대로 고려밀교사상사의 전반을 꿰뚫고 있는 이 책은 국내외의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화부>

『살아온 인생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이 책을 펴냈다. 처음으로 시도된 분야인 만큼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집필했다. 하지만 처음 시도되어 오류가 있는 것은 양해바라다'고 저자 본교 서윤길(불교학)교수는 밝힌다.

amORe 아모레가 새로운 로고와 함께 고객의 더 큰 기쁨을 창조합니다.

카미유 클로델 - 그녀는 스무살에 로댕의 연인이 되었다.

카미유 클로델 1864-1943) 프랑스의 여류조각가, 로댕에게 사사를 받았으며 영혼을 표현하는 천재적인 영감과 창조적 열정의 작품세계를 남겼다. 로댕의 그늘에 가려져 사후 41년만인 1983년에야 새롭게 평가를 받았다. 『시편』, 『성숙』, 『클로델』 등의 대표작이 있다.

아름다움 있는 대학생활 - 이모레 순정과 함께 하세요

순정은 전국 17개 중남부권 피부과와 공동연구 개발된 보다 안전한 민감성 피부 전문화장품입니다.

- 순정 스킨스프린 10,800원
- 순정 트윈에이크 10,800원

태평양

◆학내 졸업말 사용의 문제점과 의의



조의연 <문과대 영문과 교수>

졸임말...학원문제의 다른 표현
구성원들간 이질감 해소돼야

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들 집단의 결속과 단결화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자신들의 어휘가 교수는 물론 직원들에게도 일반화된 언어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또한 그들이 학교의 중심에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말한다. 즉 학생들에 의한 학내 운동이 자신들만의 의의가 아니라 학생들 힘의 확산과 더불어 그들의 문제제기가 교수는 물론 학교 당국에 의해 어떤 형태로든 수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졸임말로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총장'이다. 이것은 글 쓰는 사람이 동대 신문사로 부터 이글의 청탁을 받고 처음 접한 표현이다. 총장은 총학생회장을 지칭하는 졸업말이라고 한다. 먼저 이 표현의 특징은 두자어의 형성 형식을 벗어난다고 있다. 곧 두자어의 말만 들기 형식으로 '총학생회장'의 졸업말을 만들자면 그것은 '총학장'이 될 것이다. 내가 예전에 알아온 졸업말은 '총학장'이었지만, '총장'이라는 졸업말은 바로 두자어 형성의 일반적인 패턴을 벗어나 만들어 졌다는데서 학생들 이 어휘를 만든 또 다른 동기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알다시피 총장은 대학사회에서 대학의 수장인 대학총장을 일컫는다. 바로 총학생회장을 일컫는 '총장'은 이 동등성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학생회장을 총장의 위상으로 자제 상시시키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과 그리고 자신들의 대표를 총장이라는 언어 표현을 써서 대학총장과 동등한 위치에 놓음으로써 학교당국이라는 기득 세력에 대해 동등한 위치에서 맞서보려는 그들의 전략적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 표현은 자신들의 집단적식을 고 양시키는데 기여하겠지만 이 표현은 앞에서 보여준 '학자부'와 같은 일반 어휘로 자리잡아 나가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것은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힘의 관계에서 학생보다 교수가 위에 있으며 총장이 바로 교수출신이라는 데 이 이유가 있다고 본다. 또한 아직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학생 자신들도 교수나 학교당국의 대표자들에게 그들의 학생회장을 대학총장과 동등한 총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장의 졸업말 총장은 학생회 집단이 대학당국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줌과 그 과정에서 그들이 힘의 관계에서 자제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서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상은 학생들의 졸업말 사용을 학생들이라는 집단을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이야기 하였다. 이와 같은 졸업말이 학생구성원들 내부에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가 생각해 보자. '총장'과 같은 졸업말의 형식을 가지는 것으로 학생자치권을 지칭하는 '단장' (단과대학장) 그리고 학회장의 예로는 '국장' (국문학과 학회회장)이 있다. 이러한 표현은 표현의 발생자인 학생집단 내부에서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소통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여진다. 이것은 학생회라는 집단내부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차별성을 가져온다. 이러한 언어표현을 듣는이의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학생들 간의 자신들이 학회장의 대중화를 외치는 노력에 반하는 언어습관이 되고 만다.

특히 이러한 표현 뿐 아니라 위에서 예를 든 중앙 도서관의 '중도'나 등록금 투쟁의 '등투'와 같은 학생들은 새내기라고 불러주는 것 일컫는 신입생들에게는 혼돈 내지 이질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새로운 식구에게 그들이 익숙지 못한 언어를 구별없이 그리고 사적인 호칭없이 마구 사용한다면 이는 유익한 자기중심주의의 내지 우월주의라고 보여진다. 등록금문제와 왜 발생되고 있는가에 대한 홍보도 없이 그리고 왜 학생들은 학교당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금년에 우리학교는 고지서 발부 이전 에 왜 학교당국과 총학생회가 합의하였는가를 알리기도 전에 시작부터 '금년에 총학은 학자부의 일원으로 등투가...'하고 신입생들에게 알리는데 이는 분명 학생들의 실패를 자초하는 언어행위로 보여진다. 또한 이는 명백하게 언어를 통한 학내행위이다. 그것은 언어는 서로를 이어주는 수단인데 듣는이가 그 말의 뜻을 헤쳐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게끔 들는이에 정서를 준다는 언어는 말하는 이의 횡포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되는 대학사회 내의 다양한 졸업말은 그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자신들의 세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학집단의 구성원은 단일한 것도 아니며 경제력이 있지만도 없다. 따라서 졸업말과 같은 언어표현의 자연적 발생은 통제될 수 없는 것이지만 사용자는 대학의 각 구성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에게 이질감을 주지 않는 사용을 하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문 학 단 신

공 연 내 내

◆그들의 바다... 오태영의 작품 '목표'를 각색한 동국연극회 신입생 환영공연. 바닷가 주점을 배경으로 우영과 순녀의 현실, 사랑, 갈등, 죽음을 줄거리로 인 생이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한다. 4월 6일부터 8일까지 오후 2시, 5시. 원효관 소극장 1

◆극단 자유의 '헛발'... 연출 김장욱, 출연 유인근 김금지 박정자 권병길 윤복희 한영애 등. 10일, 11일 오후 4시, 7시 30분. 대 구시민회관 대강당. (053)23-7441

◆한국 현대연극의 재발견 2... 해양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창작극 중 연대별로 한국문학의 거러뿔아 올려질 예정이다. 연대순으로 잇따라 공연될 이번 무대에선 40년대 '살아있는 이중성' 49년 '50년대 '산불', 60년대 '죽을 것' 70년대 '괴수' 그리고 기념공연으로 '사랑을 찾아서' 등이 공연된다. 4일부터 8일까지. 예화 동 연우소극장

◆TOP GIRLS... 사회적 성공을 꿈꾸는 직장여성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마주치는 갈등을 여과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한 연극. 4월17일부터 5월26일까지 오후 4시, 7시30분. 바닷길 소극장. 745-5366

◆소리없는 만가... 정시대 문제 전상규 및 윤바를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싸움을 해온 여러 시민단체의 성과를 대중과 함께 공감하고 현시기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정시대 문제의 대중적 관심과 끊임없는 연대지지의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공연. 4월25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 예술극장 한미당. 763-9333

강 습 회

◆호남 좌도 풍물교실... 우리 민족의 정서와 맛, 그리고 신명과 흥이 한껏 담긴 풍물을 개승, 발전시키고 지역화대를 위한 강학, 캠페인, 당구, 징, 북, 소고 등을 강의한다. 4월6일부터 5월6일까지. 호남좌도 풍물극 연구회(예화동 성당 건너편 태평빌딩) 766-4427

세로 나온 책

◆머저리 연가... 이서하의 두 번째 산문집 시사양식에 서정적인 요소가 가미된 가볍고 단순한 이야기 형식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기록했다. 따뜻한 풍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줄 것이다. <살림> 4천 5백원

◆'여성문제' 강연한 박철수 감독을 만나



지난 1일 영화속에서 본 윤바를 여성상을 주제로 강연을 한 박철수 감독은 '머저리', '안개기동' 등의 작품으로 대중성을 받았고 '뿔뿔'을 통해 여자, 니르바나의 종과 같이 여성 문제를 다룬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를 주로 제작하면서 심각한 한국사회의 여성차별에 대해서 '여성을 인격체로 보호하지 못하는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스스로 존귀한 지위를 상실하고 틀안에 가두려는 여성에게도 문제는 있다'며 여성들이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사교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때 교직생활도 해보았다는 박 감독은 심각한 교육, 사회문제를 회색 시계 미화한 몇개의 청소년영화를 꼬집으면서 정면으로 한국교육문제를 고발하는 영화가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현재 여자의 남자 20부작 미니시리즈를 준비중인 박감독은 종잡을 수



"여성 스스로 자리 찾는 사고 전환도 필요"

없는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TV매체를 비판하면서 순수한 한국형 문화찾기에 힘쓸것을 다짐한다.

박감독은 "우리나라에도 영화가 산업화 시각으로 전환해 단지 유희적이거나 상업적인 차원을 넘어 순수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나리오 작가, 연출, 배우 등 다각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영화 소개 LA폭동 소재로 한 '웨스턴 애비뉴'

선명한 주제의식 비해 구성 산만

한국인 상자가 재미있게 늘어선 웨스턴 애비뉴 거리. 지수(강수연)는 이번 2세로서 용이하게 자신의 삶의 행로를 놓는데... LA폭동을 소재로 하여 만든 최초의 영화인 웨스턴 애비뉴는 '프라하의 봄', '인도지나'에서처럼 역사적, 세계적 소재를 배경으로 미국 이민세대들의 갈등과 방향, 변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화는 그래서 전반부 내내 흑인폭동이라는 분명한 결론을 갖고서도 엉뚱하게 지수와 뉴욕의 드라마스쿨로 옮겨가서 방황하게 된다. 결국 영화의 주인공은 '웨스턴 애비뉴'가 아니라 매리 앤 킴이 되어버린다.

감독은 자신도 모르게 양분법에 말려들어서 출발해 한 개인의, 한 여자의, 한인의 지극심을 회복시켜줄 이미지 창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 작품에 LA폭동이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총체적 질문을 던지고 소수민족, 혹은 한 개인이 격변의 역사와 사회를 통과하면서 겪어야 하는 문제점들의 본질을 조망하고자 한 것은 역시 무리였다.

유 행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1백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것이 비록 왕권강화라 할 지라도 보수적인 사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한 정치가가 있었다. 19세기 초엽 조선 사회의 명국명을 치유하고자 했던 대원군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어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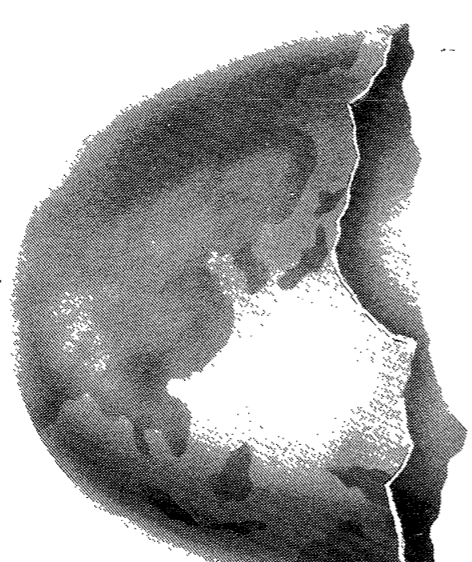
에 많은 제도과 미사여구들이 있달아 선조·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흠뻑찰처럼 흐린 뒷물이라는 사실만을 국민들이 일깨워주자 대중 아무 리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부터 말만 무성할 신경제개혁, 기득권세력과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한 인사들은 개혁의 허점을 보았다. 아직도 신정부 개혁의 말고리는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 <김영삼정권은 '고통의 분담'이라는 개혁정력을 말한다. 기득권 세력, 부패한 재벌과 공직자들에게 이계 고통을 분담시키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고통분담'은 이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외된 노동자들에게 또다시 고통분담을 추가하고 있는 듯 하다. 신정부 개혁이 기초한 개혁을 실천하지 못할 때 역사의 교훈은 다시 적용될 것이다. <수>



최경인 (17)

祝 입학 축하합니다.

“어떠한 성취도 도전 안에 있다.”



도전하지 못할 세계는 없습니다. 패기에 찬 젊음으로 무한한 세계에 도전하십시오.

젊음의 가치는 성취보다도 그것을 향한 도전에 있습니다. 목표자체가 성취라기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가 곧 삶의 성취인 것입니다. 특히 최선을 다해 매진하는 젊음 앞에는 목표보다 더 좋은 결과가 놓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젊음의 패기와 진취적인 열정으로 나아가십시오. 젊음의 무한한 가능성은 바로 그 도전적인 패기에 있습니다.

도전적인 패기를 지닌 젊음은 창조적인 열정에서 남다른다. 각자 자기소신과 목표를 지니고 최선을 다하는 도전의현상-총합건축자에서 도로, 건설분야까지 미래의 꿈을 일구어 가는 금강·고려에는 바로 이런 젊음들이 일구어내는 희망찬 내일이 있습니다.

금강·고려

△출사금 강 고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